

개혁의 물결, 우리의 새로운 도약

Innovation & Development

金榮洙/서울建築士會會長

by Kim, Young-Soo

「개혁과 변화」는 이제 우리시대의 命題가 되었다.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엔 더욱 절박한 과제로 등장했다.

21세기를 앞둔 세계인의 꿈과 이에 뒤질 수 없는 한국인의 긍지가 함께 엮어낸 시대정신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엔 뒤진 나라보다 앞선 나라를 생각해 서둘러야 했다. 때마침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리더십은 신한국창조에 집중되었다.

신한국으로 가는 길목마다에는 나쁜 과거를 쓸어내는 개혁의 의지가 그리고 좋은 미래를 세우기는 변화의 신념이 하나로 모아져야 했다.

드디어 우리사회는 긴장과 기대가 끊임없이 교차되는 숨가쁜 도전과 인내가 시작되었다. 어느 누구도 이 역사의 순리 앞에선 부정적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건축사 또한 이 도도한 물결에 흔쾌히 함께 휩쓸리며 지혜와 용기를 다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다.

어떠한 고통도 극복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우리시대 최고의 사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자유와 번영, 도덕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 그리고 온 인류와 함께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해 가는 나라, 이것이 바로 신한국의 모습이다. 신한국 건설을 위해 우리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며, 기꺼이 땀을 흘려야 한다. 우리를 부패와 나태로 이끌고 있는 우리들 자신 내부에 있는 부정적 요인들과 싸워야 한다.」 이 말은 대통령 취임초의 어느 연설문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건축사가 신한국 건설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은 자명해진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우리 내부의 부정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헌신하고 또 땀을 흘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 스스로도 놀랄만큼 지난날의 우리 업적들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이 걸맞는 건축문화와 국토건설의 선봉에서 이 땅위의 거의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 손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밤을 새워 가면서 창작에 몰두했고, 기술인력을 배출했으며 어느 전문인보다도 높은 담세율을 마다하지 않은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자량은 잠시 잊고 발전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나, 실은 알면서도 저질러진 조류병(潮流病)이 있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고쳐 나가는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과된 개혁의 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병, 우리 건축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환자인가.

사회기강이 해이해져 권위와 질서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황금만능사상이 팽배하여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렸으며,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좌절감과 배신감으로 이어지는 역기능을 연출하지 않았던가? 정치인들 탓이라고 탈법과 편법을 말리지 못한 도덕적 불감증에서 좌절과 체념으로까지 깊어진 중병이었다.

적든 많든, 크든 작든간에 우리도 감염환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사회적 병리현상의 총체적 구도로서 나타난 이 밀물엔 우리도 사정없이 당하고 만 꼴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가벼운 증세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두려울 만큼 무거운 환자로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인 동경의 건축가상이 아니라

“

협회의 주인은 우리 건축사, 바로 회원이고, 회원들이 뽑은 집행부는 희생과 봉사를 다 쏟아야 한다. 다시 회원은 신뢰와 협조를 다 할 때, 단결과 화합의 참다운 협회상은 새로운 모습을 하고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구조와 문명 질서속에 건축사의 신선한 가치체계를 재정립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창작과 예술, 건축과 문화를 이 땅위에 아름답게 펼쳐 나가는 건축사, 나라와 겨레, 전통과 역사를 이 하늘아래 한결같이 지켜 나가는 건축사, 꿈과 미래, 새건축과 신한국을 영원히 새롭게 이룩해 나가는 건축사가 바로 내일 우리들의 자화상이어야 한다.

”

민원인의 중개역이나 부조리의 대리역인 감리자로 전락된 느낌마저 줄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실제 이상으로 이미지가 떨어진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부분이 아닐 수 없다. 빌미를 제공했거나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다.

분명 한국병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 치유되어야 하고 그럴 때 신한국창조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또한 일차적 책임을 닦아고만 있을 그럴 시간은 아니고, 이차적 책임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마련해야만 한다.

개혁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고 그만큼 우리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듯 현안의 과제와 문제점들이 중첩되고 있는 오늘이다.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는 숨막힌 순간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를 긴박한 대응논리를 재촉하고 있다.

1965년의 건축사법 제정이래 최대의 시련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서신고 및 검토제도의 폐지여부와 회비납부제도의 대폭적인 쇄신방안이 앞으로의 협회존립과 건축사의 품위보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사생아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이 드디어 건축사의 대표자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사법의 건축법에의 흡수통합이 건설부에서 급진전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사실이다. 전기 및 기계설비의 분리발주가 끈질기게 개혁의 와중을 넘겨보고 있다. 예술과 문화의 차원인 건축을 한낱 기술과 용역으로 착각할 때, 개혁의 또 다른 모순성을 남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근심스러운 일은 이럴 때일수록 건축사의 공동체의식이 더욱 절실한데도 밖에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되는 것은 참으로 이해 못할 점들이다. 한마음 한뜻일 때는 모두가 얻어질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모두를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도 되짚어 봐야 한다.

신한국 창조의 개혁적 과제는 당장 우리에게 새협회 창조의 지상적 명령으로 집목되어야 한다.

「개혁에 따르는 역작용을 이유로 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손으로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 역사상 처음 주어진 개혁의 기회를 놓치면 역사가 우리를 외면할 것이다. 개혁은 나부터, 위에서부터 해 나가야 한다. 가까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해 나가야 한다.」 YS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위상과 자존도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통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자화상도 흔쾌히 고통을 떠안을 때만 마지막으로 얻어지는 기쁨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개혁의 거센 물결도 우리 건축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극복과 성취의 깨달음임을 다시 한번 보여 주자.

문화가 나라의 풍요한 삶을 지켜주고 건축이 겨레의 수준높은 생활을 이끌어 줄 때 이곳「신한국은 바로 문화대국」임에 틀림없음을 재확인 하자.

「새건축 새환경 새한국」의 창조적 모습들은 바로 우리 모두의 바람과 보람이며, 나아가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 줄 빛나는 유산임을 또 한번 자랑해보자.

우리 모두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마음껏 외쳐보자. 오늘도 또 내일도...